

달려가 많은 현금을 바치면서, 재산을 바칠 테니 부디 신의 노기를 가라앉혀 달라고 애원했네.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줄 생각도 없던 재산이 마치 인류의 아버지께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듯이 말이야! 더러 그녀의 망상은 불타는 시골 밭이나 화염에 휩싸인 산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서도 흥측한 몰골의 유령들이 자기 이름을 고래고래 외치며 배회했다지. 그녀는 담당 고해신부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자기에게 떨어질 고문과 징벌을 그려보았네. 하늘은, 정의로운 하늘은 잔악한 영혼으로 하여금 무시무시한 믿음/공포스러운 믿음/종교/신의 의무를 내리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그 이모님은 한 번은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가, 또 한 번은 미신에 빠졌다가 하더니, 죽음에나 삶에나 똑같이 염오를 느끼면서 넷 년을 보냈네. 하지만 그토록 저열한 존재의 마지막을 파멸로 이끈 것은 그녀가 자연에서 비롯한 감정을 버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안이었어. 그 이모님은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싫어하는 친척들에게 재산이 넘어갈 것을 알고 시름에 잠겼어.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따로 양도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 친척들은 그녀가 정신착란으로 인해 자주 발작 증세를 보이곤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광인 취급을 받고 감금되게 만들더니,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도 넘기게 만들었지. 이렇게 해서 그 여자의 부라는 것은 몰락으로 끝이 났네. 부는 그 부를 소유했던 자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던 것처럼, 부를 원했던